

대행 스님

한생각에 부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한생각에 중생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일단 들어 놓으면 때에 따라서 급하면 생각납니다, 급하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자기한테 급한 일이 닥쳐오면 '아이구!' 하고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것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카세트에서 나오는 거 자기 카세트에다 되놔라. 안 되는 거는 '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나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건 고가 아니다. 나한테 부딪쳐 오는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물리를 터지게 해서 지혜를 얻게 해 주는 과정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감사할 거고, 또 '거기서 일체 만법을 다 해 나가니 감사하고, 또 잘됐으니 감사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렇게 그 감사함을 알고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도 이 내 마음 깊은 속에 감사함을 놓고, 바로 맡겨 놓고 사신다면 나가서 일을 해도 편안하고 또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뭐든지 좋죠. 몸 건강하니 좋고 내 마음 편안하니 남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말도 편안하게 나오고 또 말이 편안하게 나가니까 화목을 도모하고, 이러니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 절간 살림이나 바깥의 살림이나 살림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스님네들은 결코 절을 운영하고 살림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바로 원심력을 얻어서 그 원의 항아리를 굴리고, 여러분의 살림살이와 자기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게끔 보고 둘이 아니게 나투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에 둘이 아니게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죽은 세상 산 세상을 같이 껴잡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은 이 '공' 안에 꽉 찼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관세음보살의 진짜 손입니까? 또 여기 눈들이 참 많습니다, 눈! 여기 여러분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 명이 있다면 백 명의 눈이 또 있는데 그 백 명의 눈이 수천수만 가지의 눈으로 되어 있으니 눈이 그렇게 많다면 어떤 것이 진짜 눈일까요?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저, (화분을 가리키시며) 이파리가 많습니다. 이게 소나무 이파리라면 어떤 것이 진짜 이파리겠습니까? 내가 여직껏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그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뿌리와 이파리와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파리들은 말입니다, 자기 뿌리를 못 보거든요, 흙에 가려서. 인간이 무명에 가려서 자기의 참자기를,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모든 물질은 없어져 버렸죠. 사대(四大)로 태어났다가 사대로 흩어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보니까 전부 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애가 죽었으니까 천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천도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도라는 거는 내 밥 먹을 때도 천도가 되니까요. 이 도리를 알면 뭐 떠놓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두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가 죽었거나 한다면 애라고 업신여기죠. 그런데 그 애는 먼저 늙었기 때문에 애가 됐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자가 남자로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짐승으로 될 수도 있으니, 또 어른이 애가 되고 애가 어른이 될 수 있으니 어떤 거를 세워서 어른이라고 하며 어떤 거를 세워서 애라고 할 수 있으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몸이라는 집이, 물질이 다 없어졌다면 그대로 물이자 흙이고, 흙이자 바람이고, 바람이자 바로 불입니다. 그렇다면 다 늙었죠. 백(白)이에요. 흙이에요.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구요? 우리 지금 마음을 내놓으시라면 내놓으실 수 없겠죠? 그 내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뿌리죠. 우리 마음, 내놓을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꿈에, 꿈이자 생시고 생시이자 꿈인데, 자기 몸을 뉘어 놓고 나가서 온통 다니다가 오거든요. 지금도 여기 앉으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에 지금 뭐를 내려놓지 않고 왔거나 올려놓지 않고 왔거나 뭐, 세워 놓지 않고 왔거나, 하여튼 뭐, 급한 일을 안 해 놓고 왔다면 집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벌써 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오고 온통 야단난 거죠, 마음이 말입니다. 체가 없으니까 마음만 갔다가 왔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체 있는 놈을 붙들어다가 그거를 치우게 하거든요. 내가 걱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벌써 딴 식구가 와서 그걸 해 놔요.

그러니 그 몸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그냥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된 데로 전력이 다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마다 회사마다 모두가 용도대로 다 쓰는 그 전력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여러분도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을 충만하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셔서 가정에 이익 되고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여러분의 우환과 가환을 다 자기 스스로 없애고 화목을 도모하면서 정답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죽 한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셋이든 넷이든 같이 꽂아 놓고 먹어도 그렇게 즐겁고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이 손을 쫙 벌리면 우주가 다 담겨 올 수 있는 그런 심력(心力)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분은 없을까요? 없다면요,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지난번에 앵커리지에 갔거든요. 거기를 들러서 산호세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거 같아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한국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이 더 살밭이 들어섰는데, 타의에서 구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자의에서 구하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웨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리는 기-다란 사람이 배우려고 왔는데, 30분 동안 아침에 좌선을 하라고 하니까 날더러 "그대로, 그대로 참선이라면서 어째서 이렇게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것 보시오. 그대로 참선이라 그랬으면 마음먹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 참선이지, 또 좀 틈을 내서 앉았다면 이게 참선이다 저게 참선이다 분별하지 말고 참선을 하랬지 누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때에 따라 좌선을 할 때 틈을 내서 앉았으면 명상도 되고 참선도 되고 좌선도 되고 그런 거죠. 그것이 마음을 좀 쉬어 볼 수도 있고 관(觀)해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일할 때는 일하는 것도 참선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 진리가 돌아가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 좌선한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좌선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런 생각을 하고 좌선을 했다면 그건 좌선이 아닙니다. 그냥 좌선일 뿐이지 참선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왜 참선이 될 수 없느냐?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고 선다고 생각하고 서니까, 그 나머지는 다 끊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모든 게 참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관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그 만 가지의 맛을 알겠습니까?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 시공·임대



연등 자동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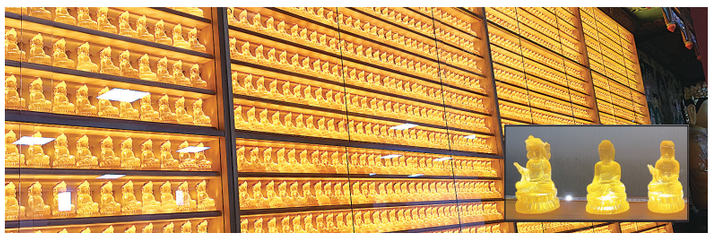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행사용 장엄등



공단연등



한지팔각등



만월등



행사용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